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남 농업정보

162호

주간 2017. 12. 4. ~ 12. 10.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별화된 흑염소고기 육가공 제품 개발!

목 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4일과 7일은 비 또는 눈, 5일은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평년(최저기온 : -2~4도, 최고기온 : 9~12도)보다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조금 많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예 보 : 잣빛곰팡이병, 균핵병, 흰가루병, 노균병, 꽃곰팡이병,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응애류 등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배추 생산·출하·가격전망
- ▶ 무 생산·출하·가격전망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1

- ▶ 농식품 수출시장의 핵심키워드를 공개합니다
- ▶ 한국산 배의 아르헨티나 수출 길 열리다
- ▶ 전남도, 세계 최대 식품시장 중국서 판촉활동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4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6

- ▶ 맥주보리 다기능 복합파종기의 손익분기 작업면적
- ▶ 택배용 딸기 포장박스 난작개발 및 활용 효과
- ▶ 전남농기원,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 ▶ 전남농기원, 발효율금 특허 기술이전 산업화 추진
- ▶ 국내 육성 검정콩에서 만성질환 예방 가능성 확인
- ▶ 메밀속성장 다양하게 즐기세요
- ▶ 순수 우리품종 딸기 메리퀸, 내년 초 출시 임박
- ▶ 특허미생물 1만 1천여 점 중복보존 완료
- ▶ 농촌진흥청, 우수 종축업체 추가 인증
- ▶ 버려지는 버섯 배지, 한우 사료로 효과 좋아
- ▶ 자연·동물 행복한 산지생태축산, 염소 가장 효과적

7 정책 동향 30

- ▶ 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
- ▶ 전남 친환경농산물 가맹점 전국으로 확산
- ▶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지원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순천시, 공공비축미 수매 1등급 이상 비율 99.2%
- ▶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통행로 새롭게 단장해
- ▶ 고흥군, AI 방역에 행정력 집중
- ▶ 해남군, 2017년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지급
- ▶ 함평군, 틈새작물로 아열대과일 레드향 재배 귀추 주목
- ▶ 장성군, 공격적 농업정책 큰 수확 거뒀다
- ▶ 신안군, 재료부터 다른 명품김장 신안 절임배추로

9 해외 농업정보 40

- ▶ 중국, 생과일주스 안전문제 중요
- ▶ 터키, 건과일 시장 현황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12. 4.(시카고 선물거래소)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4

- ▶ 여성농어업인 행복마우처 카드 사용하세요
- ▶ 전라남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안내
- ▶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 대설(大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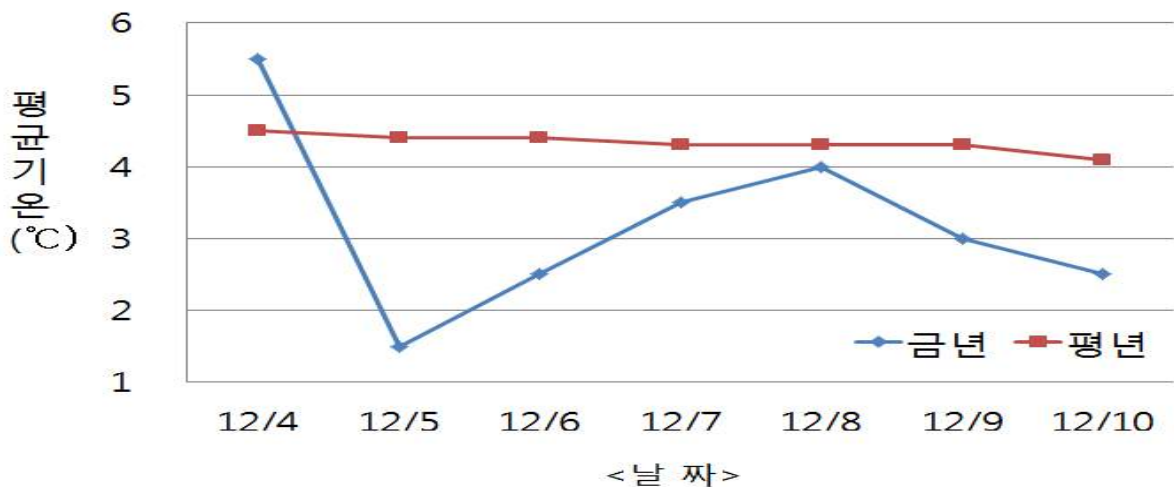
1

주간 기상 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12월 4일 ~ 12월 10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3.2℃ (평년대비 1.1℃ 낮음)
- 최고기온 : 7.0℃ (평년대비 2.4℃ 낮음)
- 최저기온 : -0.6℃ (평년대비 0.7℃ 낮음)
- 강 수 량 : 1.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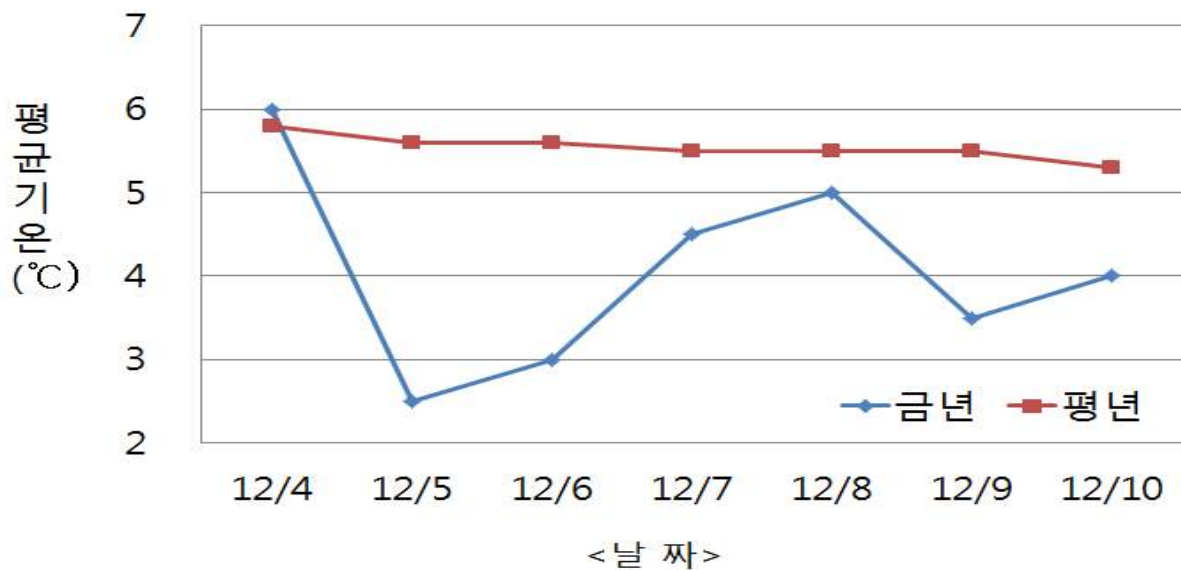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평년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3.2	4.3	-1.1	7.0	9.4	-2.4	-0.6	0.2	-0.7	1.7
12. 4.(월)	5.5	4.5	1.0	7.0	9.9	-2.9	4.0	0.2	3.8	1.9
12. 5.(화)	1.5	4.4	-2.9	5.0	9.6	-4.6	-2.0	0.2	-2.2	1.9
12. 6.(수)	2.5	4.4	-1.9	7.0	9.5	-2.5	-2.0	0.2	-2.2	1.9
12. 7.(목)	3.5	4.3	-0.8	8.0	9.3	-1.3	-1.0	0.1	-1.1	1.7
12. 8.(금)	4.0	4.3	-0.3	8.0	9.2	-1.2	0.0	0.2	-0.2	1.7
12. 9.(토)	3.0	4.3	-1.3	7.0	9.1	-2.1	-1.0	0.3	-1.3	1.3
12. 10.(일)	2.5	4.1	-1.6	7.0	9.0	-2.0	-2.0	0.0	-2.0	1.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2월 4일 ~ 12월 10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4.1℃ (평년대비 0.8℃ 낮음)
- 최고기온 : 6.9℃ (평년대비 3.4℃ 낮음)
- 최저기온 : 1.3℃ (평년대비 0.5℃ 낮음)
- 강 수 량 : 1.5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1	5.5	-0.8	6.9	10.3	-3.4	1.3	1.8	-0.5	1.5
12. 4.(월)	6.0	5.8	5.0	7.0	10.7	-3.7	5.0	2.0	3.0	1.8
12. 5.(화)	2.5	5.6	-3.1	5.0	10.4	-5.4	0.0	1.9	-1.9	1.9
12. 6.(수)	3.0	5.6	-2.6	6.0	10.3	-4.3	0.0	1.8	-1.8	1.9
12. 7.(목)	4.5	5.5	-1.0	8.0	10.2	-2.2	1.0	1.8	-0.8	1.4
12. 8.(금)	5.0	5.5	-0.5	8.0	10.2	-2.2	2.0	1.8	0.2	1.5
12. 9.(토)	3.5	5.5	-2.0	7.0	10.1	-3.1	0.0	1.8	-1.8	1.0
12. 10.(일)	4.0	5.3	-1.3	7.0	9.9	-2.9	1.0	1.6	-0.6	0.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2월 4일 ~ 12월 10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4.9℃ (평년대비 1.3℃ 낮음)
- 최고기온 : 8.0℃ (평년대비 2.3℃ 낮음)
- 최저기온 : 1.9℃ (평년대비 1.1℃ 낮음)
- 강 수 량 : 1.0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9	6.3	-1.3	8.0	10.3	-2.3	1.9	3.0	-1.1	1.0
12. 4.(월)	7.5	6.6	0.9	9.0	10.6	-1.6	6.0	3.1	2.9	1.4
12. 5.(화)	3.5	6.3	-2.8	6.0	10.4	-4.4	1.0	2.9	-1.9	1.4
12. 6.(수)	3.5	6.3	-2.8	7.0	10.3	-3.3	0.0	2.9	-2.9	1.2
12. 7.(목)	5.5	6.2	-0.7	9.0	10.1	-1.1	2.0	2.9	-0.9	0.9
12. 8.(금)	6.0	6.2	-0.2	9.0	10.2	-1.2	3.0	3.0	0.0	1.0
12. 9.(토)	4.0	6.3	-2.3	8.0	10.2	-2.2	0.0	3.1	-3.1	0.5
12. 10.(일)	4.5	6.0	-1.5	8.0	10.0	-2.0	1.0	2.8	-1.8	0.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12. 1. ~ 12. 31.)



농촌진흥청에서 토마토·오이·딸기 등 시설재배 작물에 발생하는 잣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 바이러스병,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응애류, 진딧물, 작은뿌리파리 등과 검역병해충인 딸기 세균모무늬병 등에 대해 예보를 발표했으니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단계별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구 분		시설작물
예 보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빛곰팡이병, 균핵병, 흰가루병 · 노균병, 딸기 꽃곰팡이병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 토마토황화잎말림병(TYLCV) · 추키니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 딸기 세균모무늬병 ·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병
	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채벌레류 · 가루이류 · 진딧물류 · 응애류 · 작은뿌리파리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배추 생산 · 출하 ·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가을·겨울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2017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29% 많은 145만 5천톤으로 전망된다.
-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20%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13,674ha로 조사되었다.
- 2017년 겨울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17% 많은 30만톤 내외로 전망된다.
-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4% 증가한 3,819ha로 조사되었다.

□ 출하전망 : 12월~내년 1월 출하량 작년보다 많아

- 12월 출하량은 작년 대비 26% 증가하고 평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출하면적은 가을 및 겨울배추 재배면적이 늘면서 작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12월 가격 수급매뉴얼 상 안정 단계 전망

- 12월 가격은 가을 및 겨울배추 산지 출하량 증가로 작년(8,770원/10kg)과 평년(5,670원) 동월보다 낮은 4,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내년 1~2월 가격은 겨울배추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높았던 금년(9,036원)보다 낮으나, 겨울배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어서 수급매뉴얼 상 안정(5,800원 내외) 단계가 전망된다.



■ 무 생산 · 출하 ·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가을무·월동무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2017년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24% 많은 49만 6천톤으로 전망된다.
-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 증가한 6,003ha, 단수는 12% 증가한 8,265kg/10a으로 추정된다.
- 2017년 월동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40% 많은 33만 8천톤으로 전망된다.
-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0% 증가한 4,874ha, 단수는 17% 증가한 6,939kg/10a으로 추정된다.

□ 출하전망 : 가을·월동무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12월 출하량은 가을 및 월동무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28%, 내년 1월은 작년보다 45%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내년 1월 시장격리 등의 수급안정 대책이 추진될 경우, 출하량 증가폭은 전망치 보다 축소된 19% 내외로 추정된다.

□ 가격전망 : 12월 무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12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24,630원)과 평년(9,870원)보다 낮으며, 전월과 비슷한 7,500원/18kg 내외로 전망된다.
- 내년 1~2월 가격도 금년(17,660원)과 평년(9,38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12월~내년 1월 수급안정대책이 추진될 경우, 전망가격은 평년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농식품 수출시장의 핵심키워드를 공개합니다

- 농식품부·aT, 2017년 하반기 수출정보사업 결과발표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11월 29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7년 하반기 수출정보사업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 내년도 수출지원사업은 수출과 농가소득 연계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업계 수요를 반영한 수출바우처 제도 신규도입, 新남방정책에 따른 아세안시장 진출확대 등 지속 가능한 수출을 위한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차원의 홍보가 뒤따를 예정이다.
- 또한, 농식품 수출 1위인 일본시장은 3가지(건강·내추얼·간편) 소비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확대에 따라 가정용 반찬,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내 간편 조리식품과 반찬판매 코너가 확산되고 있다는 발표가 큰 호응을 얻었다.
- aT는 내년에도 수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현장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이날 발표회 자료 및 조사결과 보고서는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산 배의 아르헨티나 수출 길 열리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 간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17. 11. 22일자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아르헨티나 검역당국은 한국산 배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국제기구(WTO/SPS)에 통보하고 6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산 배가 아르헨티나로 수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아르헨티나로 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과수원 등록을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 수출 희망 농가는 배 과수원에서 아르헨티나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재배 기간 중에 재배지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 배는 신선 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으며, 매년 2만여톤이 미국·대만 등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 우리나라 배의 중남미 수출 시장은 칠레·페루·멕시코·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로 확대되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세계 최대 식품시장 중국서 판촉활동

- 북경 국제식품음료박람회에 골든힐 등 8개 농·수산물식품기업 참가 -
- 전라남도는 골든힐 등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 8개사가 6일까지 3일간 중국 북경 국제식품음료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의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식품 판촉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북경 국제식품음료박람회는 2010년부터 개최돼 올해 8회째를 맞았습니다. 800개 부스가 마련되고, 6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비투비 형태의 세계 최대 식품·음료 전문박람회로 중국 국제전시장에서 열립니다.
- 중국 식품시장은 2015년 기준 1조 857억달러로, 전 세계 식품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 전라남도는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중장기 중국시장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식품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세적 종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드 배치로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한한령 등 대 중국 마케팅에 다소 차질을 빚었지만, 중국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중국 수출 지원 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 최근 두 나라 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라남도가 세계 최대 중국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 북경 국제식품음료박람회에 선제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출처 : 전라남도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12. 4.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륜(%)	
		판매 단위	당일 (12/4)	1주일전 (11/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8,600	38,500	37,950	32,400	40,683	↑ 19.1	↓ 5.1
	콩(백태)	35kg	164,200	164,200	167,050	186,550	166,717	↓ 12.0	↓ 1.5
	고구마(밤)	10kg	27,600	26,600	24,800	25,200	21,813	↑ 9.5	↑ 26.5
	감자(수미)	20kg	46,200	43,000	40,450	32,200	25,013	↑ 43.5	↑ 84.7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584	620	542	1,020	673	↓ 42.7	↓ 13.2
	양배추	10kg	7,400	7,800	7,575	16,200	6,524	↓ 54.3	↑ 13.4
	오이(다다기계통)	10kg	24,333	26,667	16,583	29,333	32,731	↓ 17.0	↓ 25.7
	애호박	20개	12,800	13,400	14,400	19,400	21,507	↓ 34.0	↓ 40.5
	건고추(화건)	60kg	1,290,000	1,280,000	1,335,000	580,000	780,800	↑ 122.4	↑ 65.2
	풋고추	10kg	28,600	31,400	41,150	54,050	49,760	↓ 47.1	↓ 42.5
	마늘(깐마늘)	20kg	131,200	131,200	131,250	148,000	117,333	↓ 11.4	↑ 11.8
	양파	20kg	24,800	24,800	24,900	20,850	22,057	↑ 18.9	↑ 12.4
	당근	20kg	28,400	30,000	34,250	73,800	32,417	↓ 61.5	↓ 12.4
	대파	1kg	1,640	1,580	1,750	2,455	1,896	↓ 33.2	↓ 13.5
	파프리카	5kg	17,800	18,200	23,700	26,300	23,747	↓ 32.3	↓ 25.0
	토마토	10kg	25,200	24,400	25,000	34,650	26,647	↓ 27.3	↓ 5.4
	방울토마토	5kg	17,800	18,800	21,550	21,700	15,427	↓ 18.0	↑ 15.4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3,400	33,400	34,650	37,450	39,761	↓ 10.8	↓ 16.0
	배(신고)	15kg	33,400	34,000	34,000	36,350	40,463	↓ 8.1	↓ 17.5
	감귤	10kg	21,400	21,400	21,400	17,250	17,317	↑ 24.1	↑ 23.6
	단감	10kg	30,400	27,600	23,400	21,000	20,509	↑ 44.8	↑ 48.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4)	1주일전 (11/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498,000	498,000	498,500	517,100	526,367	↓ 3.7	↓ 5.4
	느타리버섯	2kg	12,200	12,400	12,350	15,050	12,043	↓ 18.9	↑ 1.3
	새송이버섯	2kg	8,000	8,200	8,150	8,250	8,067	↓ 3.0	↓ 0.8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276	8,059	8,329	7,815	7,003	↑ 5.9	↑ 18.2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48	2,025	1,864	1,842	1,809	↑ 5.8	↑ 7.7
	닭고기	1kg	5,273	5,047	5,141	5,515	5,497	↓ 4.4	↓ 4.1
	계란(특란)	30개	5,744	5,770	5,813	5,604	5,700	↑ 2.5	↑ 0.8
	우유	1리터	2,520	2,520	2,520	2,528	2,529	↓ 0.3	↓ 0.4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12. 4.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553 천원	5,665 천원	5,580 천원	↓ 2.0	↓ 0.5
	거세	6,913 "	6,458 "	5,833 "	↑ 7.0	↑ 18.5
송아지 (6~7월)	암	2,898 "	2,865 "	2,586 "	↑ 1.2	↑ 12.1
	수	3,461 "	3,487 "	3,021 "	↓ 0.7	↑ 14.6
육우(600Kg)		3,095 "	2,989 "	2,932 "	↑ 3.5	↑ 5.6
돼지(110kg)		369 "	394 "	347 "	↓ 6.3	↑ 6.3
육계(원/kg)		1,202 원	1,378 원	1,329 원	↓ 12.8	↓ 9.6
계란(원/특란10개)		1,282 "	1,301 "	1,551 "	↓ 1.5	↓ 17.3
생체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맥주보리 다기능 복합파종기의 손익분기 작업면적

□ 배경 및 필요성

- 맥주보리 다기능복합파종기 도입 시 경제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면적, 지원조건에 따른 손익분기점 달성 작업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맥주보리 다기능복합파종기 손익분기 작업면적

기종	규격	작업일수 (일)	현재작업 면적(ha)	농기계 성능 부담면적(ha)			손익분기점 면적(ha)
				1일	7일	10일	
다기능 복합파종기	G금강(주) 10조식	3	9	3.5	24.5	35.0	17.3

- 지원 조건에 따른 손익분기점 규모

지원조건	다기능 복합 파종기 구입액(원/대당)	손익분기면적(ha)
100% 자부담	19,600,000	17.3
50% 보조+50% 자부	9,800,000	8.7
80% 보조+20% 자부담	3,920,000	3.5

- 다기능복합파종기 투자비 및 고정비용

(단위 : 원)

농기계명	규격	구입가격	내용년수	연간 감가상각비	수리비	자본이자
다기능복합파종기	G금강(주) 10조식	19,600,000	8	1,225,000	588,000	490,000

□ 기대 및 파급효과

- 농기계 과잉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지원 자료로 활용
- 맥주보리 재배단지 다기능복합파종기 적정 작업면적 확보
- 맥주보리 생력재배 농업기술 길잡이 경영정보 제공 및 맥주보리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정보 제공으로 경영 안정화에 기여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손장환, 조동호, 박신, 김덕현

■ 택배용 딸기 포장박스 난좌개발 및 활용 효과

□ 배경 및 필요성

- 택배용 딸기박스에 외부 충격과 내부 흔들림 방지를 위한 500g 포장용 난좌는 15과(33g/개), 20과(25g/개), 24과(24g/개) 3종 개발
- 보호성을 강화하고 유통기간을 늘려 직거래 농가의 소득 증대

□ 영농기술·정보 내용

- 택배용 딸기 포장박스에서 500g 난좌는 15과용(30g×15), 20과용(25.5~25g), 24과용(19~21g) 3종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모든 품종에 적합하고 흔들림을 방지하여 배송 시 파손을 방지함
- 재료는 PSP(Polystyrene Paper)를 활용하고 접착응력을 최소화하여 길이 58, 너비 43, 폭 18mm로 활용
- 딸기 재배 농업인이 택배 발송 시 규격에 적합한 난좌를 선택하여 딸기를 적재한 후 완충재인 에어캡을 덮은 다음 패킹하여 발송
- 배송장은 포장박스 외면의 부착하여 브랜드 노출로 인지도 향상
- 난좌 및 딸기 택배용 포장재 개선비용 1,691원이 추가 소요되고, 1,000개 제작의 추가비용은 1,691천원임
-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택배 판매가격과 경매가격 차이가 2,000원일 경우 800 박스를 판매해야함



【15과용(30g×15)】



【20과용(25.5g~25g)】



【24과용(19g~21g)】

□ 기대 및 파급효과

- 딸기 택배 발송 시 파손 경감 및 기간 연장으로 소득증대
- 딸기 재배단지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후 2018년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확대 보급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덕현, 손장환, 조동호, 박신



■ 전남농기원,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 하우스 농사는 어디서나 내 스마트폰으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벧짚을 논에 넣어 주고 규산질 비료를 살포 하는 등 내년도 농사 준비를 지금 부터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논토양의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콤바인 수확 시 벧짚을 3~4등분 하여 10a당 400~600kg 정도 시용한 후에 가을갈이를 해 주면 좋은데, 이를 통해 논 토양안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고 질소·인산·칼리 등 무기성분 흡수량이 증대된다.
- 논에 투입한 벧짚은 투입 2개월 후에 절반이 부숙되고, 2년 후에 90%가 분해되어 벼가 성장하는데 유익한 자양분으로 이용되는데, 벧짚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토양에 공급해 주면,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유효규산의 함량이 증가하고 땅심이 높아져 쌀 수량 증가와 함께 완전미 비율도 증대되며, 광엽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논에서는 잡초방제에도 효과가 있다.
- 논에서 생산되는 벧짚 500kg에는 질소 3.5, 인산 4.8, 칼리 17, 규산 52.5, 유기물 145kg 등 다양한 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논들은 대부분 규산함량이 부족한 산성토양으로 3년 주기로 공급되는 규산질 비료를 10a당 200kg 정도 살포해 주면 산성토양의 개량은 물론 벼를 튼튼하게 해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여름 비율을 높여 수량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 전남농기원 정찬수 기술보급과장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로 농민들의 근심이 크지만, 땅심을 높여 풍년농사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발효율금 특허 기술이전 산업화 추진

-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평가 결과 90% 만족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 특산자원인 율금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발효율금 제조방법 기술』을 도내 가공업체 2개소에 기술이전 한다고 28일 밝혔다.
- 전남도 율금 재배면적은 전국의 94%이상 차지하는 특산자원으로 최근 율금의 간기능 개선효과, 항균활성효과 등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로 소비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율금 쓴맛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낮추고 식품원료로서 어려움 등 가공현장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어 기호성과 기능성을 높이는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율금 발효 특허기술은 생율금의 쓴맛을 22% 줄이고 항산화효과와 식품 부패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유산균 발효를 통해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 지난 10월에 개최한 2017국제농업박람회 관람객 240명을 대상으로 발효 율금 액상스틱 시제품에 대한 선호도 평가 결과 90%가 만족하였고 그 중에서 50대 이상 연령층 비율이 59%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율금 쓴맛이 감소되어 먹기에 편하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국내 육성 검정콩에서 만성질환 예방 가능성 확인

- 소청자 품종, 풍부한 항산화 효능과 DNA 손상 방어 효과 탁월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밥에 섞어 먹거나 조림 등으로 이용하는 검정콩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으며, 특히 『소청자』 품종은 DNA 손상을 방어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검정콩의 까만 껍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이번에 그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 특히 2014년에 육성된 알이 작은 검정콩인 소청자에는 안토시아닌과 루테인 성분이 일반 콩(대찬콩 품종)에 비해 각각 16배와 23배가 많아 항산화 및 눈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소청자 품종의 항산화 효능은 일반 콩에 비해 물 추출물은 2.9배, 에탄올 추출물은 1.7배 높았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실험 결과, DNA 손상을 방어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세포에 산화스트레스를 주면 DNA가 손상돼 노화가 촉진되고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며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소청자 추출물에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검정콩 소청자】

- 소청자는 내년 1월 중 거주지 관할 농업기술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구입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메밀속성장 다양하게 즐기세요

- 메밀속성장 활용 조리법과 가공기술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메밀속성장을 활용한 음식 조리법과 메밀속성장을 이용한 편의식 가공기술을 개발해 소개했다.
- 메밀속성장은 농촌진흥청이 고문헌으로 전해오던 방법을 과학화·현대화시켜 2009년에 개발한 것(특허등록 10-1184-0090000호)으로, 메밀가루를 섞어 발효시킨 메주로 만든다.
- 속성장이란 대두 이외의 재료를 첨가하여 맛을 낸 장으로 계절에 따라 별미로 담가먹는 단기장(短期醬)이다. 일반 된장은 5개월 이상 장기 숙성해야 맛이 나는 반면, 메밀속성장은 4주 만에 완성이 가능하다. 염도가 5~7%로 낮고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 메밀속성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아 메밀속성장 활용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우선 메밀속성장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밀속성장 이용 편의식 가공기술을 개발했다.
- 메밀속성장을 활용한 덮밥 소스(특허출원 10-2017-0019338호)는 돼지고기·양파·마늘 등을 부재료로 해 소스를 제조한 후 레토르트 파우치에 담아 살균해 소비자가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 형태의 제품이다.
- 메밀속성장 과립형 분말은 밥에 뿌려 먹거나 주먹밥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조미분말이다. 메밀속성장 동결건조 분말을 말토덱스트린과 배합해 반죽한 뒤 과립으로 만들어 버섯·멸치 등의 부재료와 섞어 제조한다.



- 자세한 제조방법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에서 영농활용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소비자가 메밀속성장을 다양한 요리에 접목할 수 있도록 16종의 조리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별미로 만들어 먹는 메밀속성장과 활용음식』 책자로 발간했다.
-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메밀속성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메밀쌈장·메밀수제비·닭봉조림·무청시래기무침·아욱죽·묵은지버섯죽·버섯전골·모시조개 시금치국·꽃게장국·더덕구이·제육구이·장어구이·호박조림·소고기 야채말이 조림·버섯나물·파리고추찜무침 등 16종의 음식 조리법이 실려 있다.
- 이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전자책(e-book)으로 열람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p>메밀속성장 활용음식</p>	 <p>한입에 느끼는 작은 행복 쌈밥과 메밀쌈장</p> <p>재료 및 분량 4인 분량 · 밥 4공기(800g) · 참 : 호박잎 10장, 양배추 10장 · 메밀쌈장 : 메밀속성장 200g(100g), 다진 양파 50g(25g), 두부 25g(12.5g), 다진 견과류 30g, 다진 파 40g(20g), 다진 마늘 10g(5g), 참기름 20g(10g), 케찹 5g(2.5g)</p> <p>만드는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배추는 가운데 십자 부분을 제거한 후, 한 장씩 떼어서 준비한다. 참기에 물을 넣고 가열해 끓여오르면 양배추를 들어서 한 다음 호박잎을 들어 5분가량 더 가열한 후 물을 준다. 2 두부는 대략서 곱게 다져 준비하고, 볼에 메밀쌈장 재료와 두부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준다. 3 데친 양배추와 호박잎을 넓게 펴서 아랫부분에 밥을 올리고 메밀쌈장을 가운데 얹어 준 뒤, 참 양을 곁바듯 겹쳐서 돌돌 말아 준다. <p>* <Tip> 양배추잎은 두꺼운 부분을 잘게 도려내고 물을 세면 전지마루, 찜김에 익힌 양배추 곁바듯 겹쳐서 생가우면 더욱 고소한 메밀쌈장을 맛 볼 수 있다.</p>	
<p>【메밀속성장과 활용음식】</p>	<p>【메밀속성장 가공제품】</p>	

■ 순수 우리품종 딸기 메리퀸, 내년 초 출시 임박

- 과실 모양 · 당도 · 경도 우수, 수출 길 개척에도 청신호 -

- 담양군이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신품종 딸기 『메리퀸』이 국립 종자원 품종출원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 메리퀸은 순수 담양 품종으로 죽향·담향에 이어 군의 세 번째 자체 육성 품종이다. 담양군은 이번 신품종 개발로 로열티 지불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크게 해소함은 물론 수출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메리퀸(Merry Queen)은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딸기의 여왕』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메리퀸은 과실의 모양이 장원추형으로 당도와 경도가 설향 품종 보다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신품종 메리퀸은 초세가 강해 저온 신장성이 강하고 휴면성이 낮아 조기수확이 가능하며, 흰가루병에는 장희나 육보·죽향 품종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친 농가실증 시험 결과, 농업인들로부터 당도가 높고 수확기에 과실이 무르지 않아 수출에 유리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연구사는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 연구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품종 개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전했다.



- 덧붙여 “전남(담양)지역 내수용 딸기 현장실증과 매뉴얼 개발과 ICT 융복합 기반 6차 산업화 실증모델 개발 연구과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신품종의 적응 작형 개발은 물론 조기보급과 안정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편, 군에서는 신품종의 조기 보급을 장려하고 불량 종자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품종보호권을 강화하고자 담양군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에 따라 품종 보호권 침해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출처 : 담양군



【메리퀸 생육상황】



【메리퀸 과실착과모양】



【메리퀸 과실횡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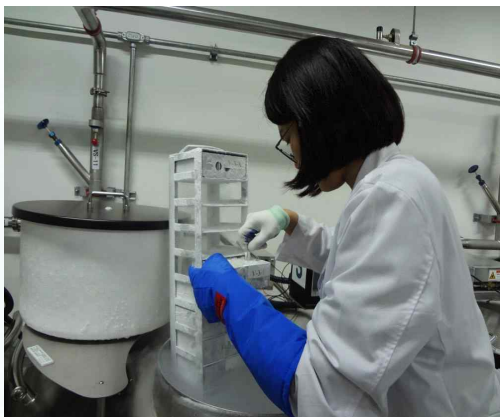


【메리퀸 과실 종단면】

■ 특허미생물 1만 1천여 점 중복보존 완료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국내 4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에 보관돼 있는 특허미생물 1만 1,382점에 대한 복제본을 제작하고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에 중복 보존을 완료했다.
- 특허미생물은 한 번 소실되면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일정 장소에만 보존하는 경우, 자연 재해나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소실될 우려가 높아 일부 선진국의 경우 거리를 달리한 장소에 특허미생물의 중복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이번에 중복 보존되는 특허미생물 1만 1천 382점은 영하196℃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보존 방법으로 특허미생물의 최소 의무 보존기간인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된다.
- 오는 2018년부터 기탁되는 특허미생물은 상시적으로 복제본을 만들어 중복 보존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특허미생물 복제본 보존】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시설】



■ 농촌진흥청, 우수 종축업체 추가 인증

- 하반기 인증위원회서 씨돼지 농장 추가... 현재 전국 39곳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17년 하반기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를 열어 전남 지역 우수 씨돼지 농장 1곳(성진종돈)을 추가 인증하고, 11월 28일(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 이번 인증으로 국내 우수 종축업체는 종돈장 14곳을 비롯해 종계장 5곳, 정액 등 처리업체 20곳 등 모두 39곳에 이른다.
-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정액 등 처리업체, 씨돼지 농장(종돈장), 씨닭농장(종계장) 등을 대상으로 종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 인증을 받은 업체는 씨가축(종축)의 지속적인 개량과 질병검진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종자(정액)를 공급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일반 양돈(돼지), 양계(닭) 농가는 좋은 질의 종자를 공급 받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우수 종축업체 인증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http://www.nias.go.kr>) → 민원참여 → 우수종축업체인증 → 인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도 상반기 우수 종축업체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는 내년 3월말 실시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버려지는 버섯 배지, 한우 사료로 효과 좋아

- 도체중 22.7kg 늘고, 사육 기간 12.2일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한우 사육 농가 2곳의 한우 129마리를 대상으로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비육효과로 1마리당 38만원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버섯재배 부산물은 새송이·팽이버섯 등을 재배하고 남은 배지에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등의 미생물제제와 쌀겨를 넣은 뒤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혐기성)으로 30~40일(여름 10~15일) 동안 발효시켜 만든다.
- 이렇게 만든 버섯재배 부산물의 가소화영양소총량(TDN)은 72.6% (마른원료 기준)로 볶짚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이 부산물을 섬유질배합사료(TMR)에 평균 10%씩 넣어 한우 육성기 부터 약 2년 동안 먹인 결과, 출하까지 평균 29.7개월이 걸렸다. 이는 배합사료와 볶짚을 먹인 대조구(30.1개월)에 비해 12.2일이 줄어든 수치다.
- 또한, 도체중은 434.5kg으로 대조구(411.8kg)보다 22.7kg 증가했고, 육량 형질인 등심단면적은 5.5cm² 더 넓게 나타났다.
- 육질 형질인 근내지방도도 대조구보다 0.4정도 높았으며, 육질 등급지수는 4.0으로 전체 평균 일플러스(1+)등급을 나타냈다.
- 우리나라의 버섯재배 부산물은 연간 167만톤이며, 사료화 가능 부산물은 58% 수준인 97만톤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버섯재배 부산물의 한우 비육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시범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해 기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자연·동물 행복한 산지생태축산, 염소 가장 효과적

- 사료비 64%↓, 새끼 수 32%↑... 초지관리·체험활동도 유리 -
- 산을 초지로 가꾸고 가축을 건강하게 풀어 키움으로써 동물 복지와 산림 보존, 두 가지를 고려한 산지생태축산에는 염소가 가장 알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 4년간 5개 축종을 대상으로 『산지 축산 활성화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한 결과, 염소가 경제성과 초지조성, 6차 산업 활용 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 염소는 목초(풀)와 산야초, 잡관목 등 어떤 풀이든 가리지 않고 소화시키기 때문에 초지 관리와 이용에 유리하고 몸집이 작아 경사가 심한 우리나라 산지에서도 방목이 가능하다.
- 또한, 염소 고기는 판매가 가능하고 유산양의 경우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체험목장을 운영하는 데도 알맞다.
- 산지 초지에서의 염소 사육은 경제성도 우수해 봄부터 가을까지 염소를 방목해 키우는 데 드는 마리 당 사료비용은 5만 4천 465원으로, 축사 안에서 키울 때 드는 사료비용 15만 1천 71원보다 64% 정도 줄었다.
- 또한, 산지 초지에서 사육한 염소는 축사 안에서 사육했을 때 보다 번식률도 32%나 높아져 마리 당 평균 19마리의 새끼를 생산했으며, 새끼의 체중도 33% 정도 늘었다.
- 농촌진흥청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초지의 목초비율을 점차 높이는 점진적 초지조성법도 개발했다.

- 목초(오차드그라스·톨 페스큐 등) 종자를 길뿌림한 뒤, 염소를 방목해 잡초와 잡관목을 제거하면서 연차별로 목초 비율을 늘린 결과, 목초 비율이 94%인 우수한 초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 이번 실험에 참여한 농가 대표는 “초지의 생산성이 높아진 후 염소가 배합사료를 먹는 양이 확실히 줄었다”라며 “산지초지 조성과 관리는 염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 산지 초지에서의 염소 사육은 관광·체험을 접목한 6차산업으로 연계해 소득을 올리기에도 유리하다.
- 경북 김천의 목장은 16ha 초지에 염소를 방목하며 초지를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고 탕, 구이 등 다양한 염소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 경북 칠곡의 목장은 10ha의 초지에 유산양 70마리, 면양 70마리를 방목하면서 먹이주기, 마차 타기 등 체험활동을 실시해 한 해 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5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잡초가 줄고 목초가 풍성하게 자란 초지】



【유산양을 활용해 체험을 진행하는 농장】





■ 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날로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원산지 위반사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 27. (월)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복구·분석을 통하여 법적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디지털 기반의 지식 정보화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복구분석기술이 핵심적인 수사역량으로 대두되면서 대검찰청 등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왔다.
- 농관원은 금년에 컴퓨터포렌식을 구축하였고 '18년까지 모바일 포렌식을 완비할 계획이다.
- '13년 이후 원산지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4,300건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과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판별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농식품 부정유통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 친환경농산물 가맹점 전국으로 확산

- 수도권·영남권 등 전국 118개 매장확보, 연간 700억원 매출 -
- 전국 50%를 차지한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및 자체 유통시스템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향토기업의 친환경농산물 가맹점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에 본사를 두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학사농장(대표 강용), 한마음공동체(대표 한승철) 등과 2006년 가맹점 지원 사업 협약을 맺은 이후 45개소에 불과했던 가맹점이 올 들어 118개소로 꾸준히 증가했다.
- 가맹점 개설지역도 기존의 광주·전남지역 외에 수도권 13개소, 영남권 10개소, 충청권 4개소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 한편, 전남 친환경농산물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개인이나 법인들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21), 학사농장(062-384-6201), 한마음공동체(061-393-0649)로 문의하면 된다.
- 지원대상은 경력 및 거주지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업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유통업체 심사, 금융기관의 담보능력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및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전라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연리 1%의 저리로 최고 1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 출처 : 전라남도



■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지원

- 전남도, 2018년 1% 저리... 농식품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 전라남도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식품가공 분야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1%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전남에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다. 또한 농어업인 및 농수산물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 이면서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12월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특히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1차 단순가공보다 2차 복합가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분류되며, 융자 한도는 10억원이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 한편 전라남도는 2008년부터 매년 100억원 규모의 식품가공 분야 융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9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공공비축미 수매 1등급 이상 비율 99.2%

- 공공비축미 수매 순조롭게 진행 -

- 순천시는 지난 7일 별량면 구룡 1호 창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6일 도사동 대대창고까지 산물벼 및 건조벼를 매입해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완료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미는 논에서 올해 수확한 상태의 건조되지 않은 산물벼와 추수 후 건조시킨 건조벼 2가지 상태로 매입하며, 총 매입량은 4540톤(산물벼 2500, 건조벼는 2040톤)으로 현재까지 총 2927톤(64.5%)이 매입됐다.
- 11월 28일 기준 매입 계획량 대비 64.5%를 수매한 결과 현재 특등급 비율이 57.6%, 1등급 비율이 41.6%로 1등급 이상이 전체 99.2%를 차지해 전년대비 등급이 대폭 상향되어 농가소득과 직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그간 고품질 순천쌀 생산을 위해 노력한 순천시 농업인들의 땀의 결실이 높은 등급으로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0~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내년 초에 최종 확정 지급할 예정이며, 시는 28일부터 포대당 (조곡 40kg) 3만원씩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통행로 새롭게 단장해

- 광양시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통행로를 새롭게 단장해 시험포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그려진 바닥화는 광양시의 마스코트인 미래소년 - 해아(어린이아이)와 함께 양 옆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 한편,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시험포장에서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행복한 꽃나들이! 해피 아이! 힐링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1회 광양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 꽃축제기간에는 그림그리기 경진대회와 노래자랑, 마술체험, 나비방사, 꽃묘나눠주기, 스탬프 랠리, 놀이기구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김영배 도시농업팀장은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시험포장 길이 시민들의 도심 속 작은 휴식공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고흥군, AI 방역에 행정력 집중

-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AI발생 기점은 철새도래지로 예상되는 만큼 고흥만을 비롯한 주요 철새 출현 지역에 축협 방제단과 함께 광역방제기를 활용 대대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하였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소규모 가금농가 등 방역 취약 농가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고흥군은 제주와 고흥을 오가는 남해고속 카훼리호 녹동 신행 입항 시 하선하는 차량과 승객의 전염원 사전 차단을 위해 주요지점 방역대 설치와 산불진압 차량을 이용하여 AI 차단방역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 군 방역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책임방역 의식이라며 매일 축사주변 소독과 AI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고, “방역수칙 미 이행 적발 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여 청정고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고흥군은 특수시책 일환으로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금류 일제 수매·도태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 결과 2012년 이후 최근 6년간 단 한건의 AI가 발생하지 않아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고, 이를 위해 지금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 해남군, 2017년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지급

- 해남군은 28일부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에 대한 중간정산액을 지급한다.
- 이에 따라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농협을 통해 28일 중간정산액을 일괄 지급받고, 28일 이후 매입 농가는 매입 즉시 지급하게 된다.
- 중간정산액 지급단가는 40Kg 조곡 기준으로 건조벼 특등 3만 990원, 1등 3만원, 2등 2만 8660원, 3등 2만 5510원이며, 산물벼의 경우 1포당 포장가격 864원을 제외한 특등 3만 126원, 1등 2만 9136원, 2등 2만 7796원, 3등 2만 4646원이다. 다만 산물벼의 경우 이미 지급된 매입 대금 3000원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 확정 가격은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 전국 산지쌀값 평균 가격(쌀 80Kg)을 벼 40Kg 가격으로 환산해 다음해 1월 중 기준가격을 확정 후 정산 지급한다.
- 올해는 우선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고,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농민들의 원활한 자금 유동을 위해 매입자금의 일부를 중간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 해남군의 올해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계획량은 57만 9013포(40Kg 조곡 기준)이다.

* 출처 : 해남군

■ 함평군, 틈새작물로 아열대과일 레드향 재배 귀추 주목

-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작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

- 전남 함평에서 고소득 틈새작물로 아열대과일인 레드향을 키우는 농가가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산면 구산리에서 이문형(42)씨가 레드향을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
- 한라봉과 감귤을 교배한 레드향은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아열대과일로, 과즙이 많고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1주당 40~5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고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 함평지역은 토양이 비옥해 당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길어 제주보다 보름가량 수확을 앞당길 수 있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와 올해 다년생 묘목 1220주를 심었다. 내년 1월쯤 300~400kg을 첫 수확하고 점차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함평군



■ 장성군, 공격적 농업정책 큰 수확 거뒀다

- 장성군은 전라남도가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촌진흥사업 추진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쌀 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선진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현재 장성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벼 생산 단계별로 기술을 지도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벼 병해충을 생육 초기부터 예방하기 위해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벼멸구·이삭도열병 등의 적기 방제를 위해 벼 공동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장성군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12%에서 3% 이내로 줄여 40억원 가량의 병해충 피해 절감 효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10a당 벼 생산량을 471kg에서 505kg으로 크게 늘려 20억원 정도의 생산비 증대 효과를 이뤘다.
- 장성군의 현장 중심 교육도 이번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장성군은 선도 농가를 현장 실습 농장으로 지정해 농업 고수인 선진 농업인으로부터 성공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3-UP 현장이답(現場而答)』 사업을 벌이고 있다.
- 특히 교육생들끼리 서로의 농사 비법이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다른 농업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건 이번 사업의 또 다른 수확 중 하나다. 약초 교육생들의 경우 실제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동 텃밭을 조성하고 40여 가지 약초를 직접 기르며 현재까지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사과 교육생들은 연구 모임을 만들어 매월 한 차례씩 교육생 농장을 순회하며 사과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 출처 : 장성군

■ 신안군, 재료부터 다른 명품김장 신안 절임배추로

- 신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는 게르마늄 토양에서 해풍맞고 자라
있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배추에 일반 정제염으로 절임을
하지 않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 천일염으로 절여지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중도의 북신안농협 절임배추 가공공장은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시설로 신안산 배추와
천일염을 사용해 지난 20일부터 절임배추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 신안 천일염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갯벌에서 생산돼 미네랄이 풍부하여, 절임배추를 만들 때 사용하면
젖산 발효가 천천히 진행되어 맛있는 김치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 김장배추 과잉생산으로 산지가격의 하락이 심하지만 북신안농협은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소비자는 신뢰를, 생산자는 안정된 소득을
얻고 있다.
- 절임배추 가격은 20kg상자 당 31,000원(택배비 포함)이며, 주문은
061-271-7555로 하면 된다.

* 출처 : 신안군





■ 중국, 생과일주스 안전문제 중요

- 강소성 난징 검험검역국은 생과일주스는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해 세균이 함유되어 아동이나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아동, 노인들은 생과일 주스보다는 가열, 살균 과정을 거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 과일과 야채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식품이다. 생과일주스는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함으로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생과일 주스는 식당이나 음료가게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 생과일주스를 선택할 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의하여야 한다.
- 생과일주스 가공과정의 위생안전 문제. 생과일주스를 만드는 과일은 반드시 신선하여야 하고 곰팡이, 파손 등 변질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생과일주스를 만드는 물은 포장용 생수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련 규범에 따라 정수설비로 정수과정을 거친 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 생과일주스는 살균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공과정에서 원료를 깨끗이 씻고 용기 또한 철저히 세척, 살균 처리 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종업원들이 건강, 위생 상황 또한 중요시 하여야 한다.



- 생과일주스는 즉석에서 마셔야 한다. 10~60℃ 조건에서 보관하되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영양성분과 신선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 생과일주스는 과즙을 내는 과정에서 세포구조가 파괴되어 공기에 노출 시 쉽게 갈색으로 산화된다. 이것은 변질된 것이 아니므로 갈색으로 변한 생과일 주스는 짧은 시간 내에 여전히 마실 수 있다.
- 통계 수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7년 1~10월 난징 항구 수입 과일, 야채 총량은 19.19톤, 총금액은 21.91만달러이다. 강소성 난징 검험 검역국 의견에 의하면 생과일, 야채 주스는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해세균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함으로 가열 또는 살균 과정을 거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중국의 생과일주스 가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건강에 포커스를 두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에 따른 매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과일주스는 커피숍에서도 판매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과일의 경우 포도를 제외하고는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국산 과일로 주스를 제작하고 있다. 이외 과일음료 베이스를 활용한 음료도 많이 즐겨 찾고 있는데 이 음료시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터키, 건과일 시장 현황

- 터키는 농업 생산이 건실한 국가로 세계 7위의 농업생산국이며 식량자급률이 95%를 넘음. 농업에 유리한 기후, 젊고 풍부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갖춤. 특히 건무화과·건포도·건살구 생산은 세계 최고 수준
- 터키에서 유럽연합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 역시 씨 없는 건포도·건무화과·건살구이며 총 건과일 수출 중 54%는 씨 없는 건포도, 16%는 건살구, 15%는 건무화과에 해당함
- 2016년도 터키의 건과일 수출량은 그 전해에 비해 7% 증가함. 터키의 건과일 수출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영국이며 독일과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음. 터키 건과일의 대표적 수출국가인 유럽연합은 터키 건과일 수출의 65%를 차지함
- 2023년까지 터키의 건과일 수출 목표액은 30억달러임. 여러 가지 건과일이 혼합되어 하나로 포장된 건과일 수출과 관련하여 터키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이 부족한 열대 과일의 경우 수입 후 가공, 포장하여 자체 제품으로 수출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할 계획
- 또한 작물의 품질 향상 및 유기농 농업과 관련하여 생산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터키의 건과일은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높음.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극동지역 터키 식품 수출의지와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로 많은 수요와 수출 활동이 기대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12. 4 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전체적인 강세를 보인 곡물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상황(▲7.1%)

- 밀 선물가격은 월물의 변화로 인해 높은 상승이 있었으며, 3월물 기준 전일 대비 부셸 당 5-1/2센트 상승하였다. 거래자들의 숏 커버링을 포함하는 기술적 매수세와 주말에 불어 닥치는 폭풍이 호주의 밀 수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되면서 밀 선물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5.0%)

- 옥수수 선물가격은 월물의 변화로 인해 높은 상승이 있었으며, 3월물 기준 전일 대비 부셸 당 3센트 상승하였다. 금일의 상승으로 인해 3주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거래자들의 기술적 매수세가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대두 선물시장 상황(▲0.9%)

- 미 달러화의 약세로 인한 선물 가격들의 상승세와 거래자들의 기술적 매수세로 인해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9% 상승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작물지역에 건조기후가 확장될 것이라는 염려는 이러한 상승에 힘을 보태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하세요

□ 사용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사용금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회수됩니다

□ 사 용 처 : 36개 업종

업 종 명	코드	업 종 명	코드
스포츠 용품	6001	경기장	6103
레저용품점	6002	사진관	6105
수영장	6009	서점	6106
종합스포츠센터	6010	화원	6109
놀이공원	6012	음반 판매점	6117
기타 관광호텔	5503	문화/취미 기타(신문,잡지)	6199
펜션, 민박	5504	휴게음식점	2001
기타 숙박업	5505	제과점/아이스크림점	2002
관광 여행사	5701	커피전문점	2003
관광 기념품점	5702	패스트푸드점	2004
요가	6016	기타 휴게음식점	2099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한식	2101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일식/생선회집	2102
미용실	7102	중식	2103
안경점	1204	양식	2104
화장품점	7105	부패	2105
영화관	6101	패밀리 레스토랑	2107
공연장/전시장	6102	일반음식점 기타	2199

* 출처 : 전라남도



■ 전라남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안내

□ 농촌인력지원센터란?

-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인근 농촌의 초기 귀농자, 지역민 및 도시의 구직자를 중개수수료 없이 연계하여 주는 곳임
- ※ 인건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인력을 중개·알선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인 : 농작업에 일손이 부족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농업인
- 일자리 구직자 : 신체 건강하고 농작업이 가능하신 분
- ※ 외국인 근로자는 불가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가능

□ 언제·어디로·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첫회는 방문접수 필수, 2회부터는 전화신청 가능
 - 농업인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
 - 필요인력, 일정, 임금수준, 작업내용 등을 신청서에 기입
 - 구직자 : 일하고 싶은 지역의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
 - 희망근로지역, 희망작업기간, 희망임금, 차량필요 여부 등을 신청서에 기입
- (접 수 처) 도내 농촌인력지원센터(21개소)

□ 일자리 참여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나요?

- 상해보험 무상가입
- 교통비 지원
- 숙박비(관외자 등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작업자) 지원



□ 전남 농촌인력지원센터 현황

시군	센터운영 농협	센터위치	연락처
여수시	여천농협	여수시 학동 1길 19	685-0993
순천시	순천농협	순천시 낙안면 배재길 37-1	727-1695
광양시	다압농협	광양시 다압면 항동3길 11	772-4006
고흥군	풍양농협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179	833-1093
장흥군	천관농협	장흥군 대덕읍 장흥대로 921	867-1293
강진군	강진농협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2길 32	434-9199
해남군	황산농협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79	535-2851
영암군	삼호농협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75	462-6010
	영암농협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122	473-5235
	신북농협	영암군 신북면 간은정로 32	472-9997
	영암낭주농협	영암군 도포면 호산로 46	473-5181
무안군	무안농협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96	455-2666
함평군	함평농협	함평군 함평읍 내바람길 42	320-0615
영광군	굴비골농협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2길 31	356-0345
장성군	장성농협	장성군 장성읍 청운2길 18	394-5100
	삼서농협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41	394-2008
완도군	청산농협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29	552-0305
진도군	서진도농협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48	543-7855
신안군	북신안농협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1	275-0405
	압해농협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4	271-0515
	신안농협	신안군 자은면 구영2길40	271-4005

* 출처 : 전라남도

■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 대설(大雪)

- 24절기 중 스물한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소설(小雪)과 동지(冬至) 사이에 오는 절기로 양력으로는 12월 7일 무렵, 음력 11월에 든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음력 10월에 드는 입동과 소설, 음력 11월에 드는 대설과 동지 그리고 12월의 소한(小寒), 대한(大寒)까지를 겨울이라 여기지만, 서양에서는 추분(秋分) 이후 대설까지를 가을이라 여긴다.
- 특히 24절기 중 대설이 있는 음력 11월은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로 농부들에게 있어서 일 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농한기(農閑期)이기도 하다.
- 이 시기는 가을 동안 수확한 피땀 어린 곡식들이 곳간에 가득 쌓여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풍성한 시기이다.
- 한편 이날 눈이 많이 오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전해지지만 실제로 이날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
- 눈과 관련하여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 역할을 하므로 동해(凍害)를 적게 입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의미이다.
- 대설에 먹는 음식으로 꿀, 꽃감과 보양식으로 호박죽과 팔죽을 즐겨 먹으며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보신을 위해 먹었다고 한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162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